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3일(금) 오후 8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간 방별 모임은 기도회에 연합으로 참여합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가 23일(금) 학교에서 놀이 한마당으로 형식을 바꾸어서 진행합니다.
- 어린이학교 여행이 20일(화)-21일(수) 에버랜드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5학년이 해외문화체험(유럽)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멋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다음 주일(25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건강회복을 위해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성기 집사 · 김예지 청년 · 김이레 청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5 호

2023년 6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무엇에 취해 살아야 할까요?

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듯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눈에 초점이 없고, 움직이고 있으나 팔을 늘어뜨리고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일부 거리엔 이미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들도 마약거리 혹은 좀비거리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거리에 마약 해독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의 종류는 펜타닐입니다. 그런데 미국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나 총기사고,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닌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마약, 특히 펜타닐 과다복용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펜타닐 문제 뿐 아니라 마약을 합법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마약의 한 종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며 대마의 가정 재배, 가공, 유통, 소비 등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이후 태국에서는 대마가 함유된 음료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음료를 편의점과 노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푸켓이나 방콕의 카오산거리에서는 대마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거의 모든 편의점과 노점에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팔듯이 대마를 진열해 놓고 원하는 상품을 시향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현지인들의 목소리도 있으나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의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지 거리에서 보이는 20~30대의 한국인들도 대마에 취해 이성을 잃고 하염없이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대마를 찾아 태국으로 떠나거나 한국으로 가지고와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약에 대해 우리나라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정도의 마약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밀수의 방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입하면 영원한 고객이 되기 때문에 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펜타닐의 중독성은 한 중독자의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펜타닐의 부스러기라도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졌다", "치아가 삭아서 어금니 4개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 중독자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1년뒤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된 무서운 펜타닐이 2020년 이후 몇 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10~20대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거짓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처방받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 이런 중독의 유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면 참 좋겠는데, 21년 불법마약 유통의 총 책임자를 검거하고 보니 10대, 고3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무척 당황스럽고, 두렵고,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약에 취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와 현실 앞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외면하지 않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혹이 거세지는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살아나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

< 로마서 13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20장 208장 / 325장

기도 :

성경 : 역대지상 27장

제목 : 다윗의 조직개편

1. 내용: 다윗의 조직개편. (What)

<문단구분>

1~15 군사조직[평시 군사조직]

16~25 국회위원

25~34 국정운영위

2. 의미: 성전은 한 마음을 가질 때 세워질 수 있다. (Why)

1)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 다 연합해야 가능하다. (1~24)

2) 리더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1~24)

3) 배신한 국가의 요직들 (32~34)

3. 적용: 끝까지 충성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How)

1)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마음을 품자.

2)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 수행하자.

3) 끝까지 충성하자.

최근 일기들

평화로운 아침이다.

밤새 뒤척이다 맞이한 아침은 반갑기 그지없다.

아침은 항상 좋다.

창문 하나 사이로 밖과 안이 나뉘어진 안방. 그래서 좋다. 저 얇은 창을 밀기만 해도 나무냄새, 비냄새, 풀냄새, 벌레냄새.. 다 생으로 느낄 수가 있다. 겨울엔 찬기가 스며도 불만이 없다. 세 계절 좋고 한 계절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커피를 내려 와서 앉았다.

저것 좀 손 보고 ~ 하다가 뜨거운 커피가 다 식었네..

잠깐 사이에도 시간은 흐른다.

식고, 변하고, 회복되고, 미워지고, 사랑해지고..

한 찰나도 멈춤이 없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지켜낸 것들은 차곡차곡 모아 저서

주님께로 들고 갈 보따리가 될 텐데 에휴~ 오늘도 잘 해보자 !!!

요즘 하나님은 누구 땀에 기쁘실까?

무슨 일로 웃으실까?

무엇을 칭찬하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난 그렇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아 죄송하다.

종교적으로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을 때 난 어떤 사람일까?

길 위에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서, 마트에서, 옷가게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27 : 4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55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로마서 13 : 1-7 설교자
성가대 찬양 421 따뜻한사랑방
설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1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봉헌위원 : 임진숙/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이 땅의 시민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고, 그 중심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1>입니다.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 하나님 안에서 복종.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둘째로,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에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9-21>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복종 하십시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하십시오. 두 나라의 백성으로 지상의 국가와 사회제도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그것에 항거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열린 "화가의 벗: 시대공감" 전시를 보았습니다. 화가 윤중식,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교사 한 명과 꾸러기 두세 명씩이 짝을 지어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 걷기보다는 달리고 뛰는 꾸러기들이라 미술관에서 움직이는 게 좀 걱정이 되었지만 꾸러기들은 약속을 잘 지키며 차분히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꾸러기들은 세 화가의 작품들을 구별할 수 있었고 작품을 보며 드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말, 소, 아이들, 나무 등을 그린 작품들이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나와서는 근처 삼청공원에서 놀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둘러볼 수도 있었지만 오전내내 미술관에서 둘러놓았던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풀어놓고 신나게 노느라 놀이터에 머물러 놀았습니다.

숲에 다녀왔습니다. 숲이 가까이 있지만 꾸러기들이 자주 아프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숲에 다녀왔습니다. 숲에서 가시개미를 만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빠들과 함께 보았던 나무들을 찾으며 뿌듯해합니다. 생강나무잎과 누리장잎을 비벼 냄새를 맡아보고, 머느리밀싹개잎을 뜯어 맛보았습니다. 침낭쿨을 걸어 엮고 꽃을 몇송이 꽂으니 서로들 머리에 써봅니다. 오는 길에 그루터기에서 오디를 따먹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소꿉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적 한시간 놀이 동안 긴 이야기가 펼쳐지듯 일주일이라는 시간속에 커다란 삶 한덩이가 푹 하고 풀어진듯한 느낌입니다.

웃음·갈등·화해·오해·칭찬·사과·용서·기쁨·모든 감정들과 상황들이

배움과 가르침

우리를 스쳐갔지만 결론은 참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맺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에버랜드 여행을 앞두고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알아보고 조편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지, 빙글빙글을 즐기는지, 귀여운 동물을 볼건지 등으로 6조로 나누어 비슷한 어트랙션을 즐길 친구들끼리 묶어 주었습니다. 벌써 마음은 그곳에 가있는 듯 경험담과 설렘으로 모두들 들뜬 날들을 보냈습니다.

또 멧쟁이와 꾸러기와 함께할 놀이한마당도 멈출 수 없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짜준 도시락으로 누구랑 같이 먹을까요?

수업 소식으로는요

매일 30분씩 하는 연산시간을 통해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연습과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연산책을 서너권이나 끝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 책을 받을때 마다 쟈리한봉지가 붙여져서 나가는데요 친구들이 무척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어린이학교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멧쟁이학교

기다리고 기대했던 학년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학년은 정읍, 2학년은 서울과 춘천, 3학년은 인천, 6학년은 포항과 부산에서 알찬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학년끼리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점심, 유럽 해외문화체험학습을 마치고 5학년과 이어진 선생님이 귀국했습니다! 마침 인천에서 여행 중이던 3학년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반겨주었습니다.

학년별 여행과 유럽여행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미국에 있는 4학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교사 : 장성아 >

오두막 공동체에 다녀왔어요

아직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합천으로 가는 김집사를 따라서 합천에 갔다. 마침 멋쟁이들도 여행을 하는 주간이라서 수업 부담이 없었기에 훌가분히 떠날 수가 있었다.

오두막 공동체는 식구들이 많지 않다.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고, 삶이 힘들어 온 사람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따라온 부모도 있다. 그중에 젊은 청년이 다섯 명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른다고 한다. -여기에 거주하는 어른들은 이들을 '애들'이라고 부른다. 이 '애들'의 나이는 삼십대에서 사십대 초반이다. 그에 비해 어른들 나이가 거의 육십이 넘기도 하고, 독수리 오형제의 지능이나 행동이 어린아이 정도라서 그러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 '독수리 오형제'는 조현병이 있는 이도 있고, 우울증, 강박증, 발달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인 공통성은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것도 하지 않고 숙소에서 누워만 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들을 위주로 짜여져 있다. -예배, 노동, 요가, 베이커리, 영화 상영, 등산, 소풍 등. 그런데 그중에 인상적인 것은, 설거지를 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설거지는 우리도 귀찮아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애들이라고 함부로 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돼지고기 요리가 나온 날, 그릇을 갖다 놓으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비누질을 하고 있었다. -그 전에 내가 설거지를 하러 갔다가 애들이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기름 설거지는 애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거다.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엔 이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몇몇의 부모와 어른들과 사랑이 있다. 그들은 그냥 이들과 함께 산다. 그렇다고 '독수리 오형제'가 돌봄만 받는 것은 아니다. 젊은 그들은 힘이 세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몫의 일을 한다. 물론 지도와 보살핌이 있어야 하지만.

오두막 공동체에서는 '가장 느린 자를 중심으로'라는 말을 한다. 그들은 느리고 부드럽다.

'정오야이, 오늘은 목욕하그레이, 그란하문 념들이 꼰뱅이라 현대이' 참 따뜻한 잔소리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320장, 292장

성 경 : 사도행전 18장 1~4절

말 씬 :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마약에 취해있는 시대 >

1) 세계는 마약과의 전쟁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약에 취해있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기독교대안학교협의회>

1) 전국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한대연소속 대안학교들을 위해
2) 한대연 학교들을 위해 수고하는 한대연의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여행중에 있는 멋쟁이학교와 4학년을 위해
2) 공동체에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생활 식구들은 공동체학교의 여러 일에 항상 적극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이번 멋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에서도 3학년들의 자전거를 민락천까지 날라주셔서 위험한 길을 피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5학년들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주시기도 했습니다. 여행 후 소화에 무리가 될까 싶어 다음날 아침식사를 죽으로 준비해주시는 세심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랑방의 아이들은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